

진학교시들과 함께 하는 2015 대입 성공 프로젝트

② 전형 구조

서울대 과학2 필수, 지방의대는 선택

(자연계)

올해 대학입시는 수시 69%(23만8312명), 정시 31%(13만5565명)로 총 37만 2877명을 198개 대학에서 선발한다.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내신 전형), 실기위주 전형(특기자 전형), 특별 전형 등 크게 5가지 전형으로 나뉜다. 정시에서는 수능위주 전형과 실기위주 전형(특기자 전형), 특별전형 등 3가지다.

서울 주요 대학은 수시 63.1%, 정시 36.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수시에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를 이룬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은 수시 70.1%, 정시 29.9%로 수시에서 학생부 내신전형이 중심이다.

정시에서는 다군의 모집정원이 더욱 줄어들어 사실상 1군과 2군의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수시전형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서울 주요 대학<표1>과 광주·전남 지역 주요 대학<표2>의 입시전형 구조의 특징과 그 대비법을 알아본다.

◇서울권 대입 전형 특징과 대비 방법

▲논술 전형=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수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대비 방법은 각 대학별 출제 원칙을 익히고,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을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

특히 자연계 과학논술에서 자신이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과목과 논술 지원 대학의 논술 과목과목이 일치하도록 꼼꼼히 살펴서 지원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고등학교 전반적인 생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비 방법으로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관련 적합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보여주는 학교생활 활동상황이 있어야 한다. 전공과목에 관한 적합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전공관련 교과활동·학술활동·진로활동·자율활동·봉사활동 등 학교생활 내에서의 전공과목 관련해 노력한 점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예 : 오답노트, 학습플래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 보고서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타낼 수 있으면 지원에 불만 없다.

▲학생부 내신전형=작년도 입시결과와 내신 산출방법, 최저학력기준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내신 산출방법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별전형=사회적 배려 대상학생, 전문계 출신학생, 농어촌 출신학생 등이 있다. 모집시기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서울 입시전형 구조

	논술 중심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별 전형	실기 위주	정시						계
						가	나	다	가	나	다	
서울대		1672	692	164		771	18					3317
연세대	738	373	257	249	968			986				3571
고려대	1227	910	271	595				1057	49			4109
서강대	468	243	202	31	142	558	106					1750
성균관	1364	1149	200	100	390			513				3716
한양대	585	850	346	274	206	231	41	592	131			3256
이화여	600	500	350	40	311	1230	181					3212
중앙대	883	654	266	558	218	517		445	40	65		3646
경희대	1040	1110	320	340	287	951	146	995	146			5335
시립대	201	340		154		934	106	147				1882
비율	20.0	20.1	8.9	6.8	7.3	15.3	1.4	16.9	1.1	2.2	0.2	100.0
		63.1%(29515명)					36.9%(17297명)					

■광주·전남 입시전형 구조

	논술 중심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특별 전형	실기 위주	정시						계
						가	나	다	가	나	다	
전남대 (광주)		206	1616	241		789		792				3644
조선대		450	2165	374	281	932		974				5176
호남대			1268	262	66	34		298				1928
목포대			1161	115	34	172		371				1853
순천대		127	859	178	49	243		467				1923
광주교대		20	158	14				171	13			376
비율	4.4	55.1	8.4	2.2	14.6	0.1	15.0	0.1	0.0	0.0	0.0	100.0
		70.1%					29.9%					

울 수시 선발인원 69%

수도권, 논술·학생부 위주

광주·전남권은 내신 중심

정시, 서울대 모집군 이동 변수

에 나뉘져 있다. 수시 전형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과 내신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 정시전형의 특징은 수능이 포함된다.

입시 결과가 일반전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은 자신이 유리한 전형에 맞는 대학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학생전형에서 종합전형 준비를 한 학생은 수시전형에, 상대적으로 수능이 잘 나온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다.

▲정시전형=2015학년도 정시전형에서 1군과 2군 사실상 2개의 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진 가운데,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의 지원 흐름을 가늠할 의외로 모집정원 증가이다. 둘째, 대학의 모집군 변동이다. 서울대가 나?가 군으로 이동함으로써 대학들의 연쇄이동이 일어났고 셋째, 모집인원 200명 이하 모집단위는 분할모집이 금지되어 모집단위가 커져서 입시결과에 영향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광주·전남권 특징과 대비 방법

광주·전남권 대입 전형의 특징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과학2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서울대 입시군과 전남대 외에, 조선대 외에·치대에 모집군이 겹쳐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과학2가 필수가 아니므로 의예, 치의에 진학과 서울대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과학2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시전형이 70.1%로 매우 높으나, 논술전형이 없고 학생부 내신전형이 55%로 기형적으로 높다. 이는 수험생 수에 비해 대학의 수가 매우 많은 지역적 특성도 고려된 구조다. 먼저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포석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종합전형이든 학생부전형이든 작년 내신의 입시결과를 보고 지원해야 한다.

전남대는 1단계에 합격하고 최저기준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는 입시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1단계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울권과 광주·전남권 대학은 전형 방법에서 매우 차이가 크다. 수시에서 서울권은 논술과 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큰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내신이 절대적인 내신전형이 매우 크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입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철민 시민기자·송덕교 교사·한들대학입시전형연구회장>



“직업은 무엇이 좋을까” 광주일보와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6일 나주 금천중학교(교장 김찬중)에서 ‘NIE 일일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NIE 교사로 파견된 광주일보 박정욱 기자는 박영희 교사와 함께 2학년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 직업은 무엇이 좋을까?’를 주제로 신문에 나타난 직업 조사하기, 희망 직업 인터뷰, 직업신문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김천중 제공>

“디지털 교과서” 2018년 도입을”

스마트 교육 전문가 토론회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적용”

문·이과가 통합되는 2018학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에서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리는 ‘디지털교과서 및 스마트교육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부원장은 ‘디지털교과서 정책 현황

과 향후 추진 과제’라는 발제에서 디지털교과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확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교과서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 교과목을 선택해 대상 학생 전체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는 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전문 과목에 서책형 교과서 대신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활용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회·과학 교과서와 영어과 교과서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초등학교는 발달 단계상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학 과목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조 부원장은 디지털교과서의 본격 도입 시기에 대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적용되는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발 체제, 기술기반, 인증제도, 공급 혹은 접근성 제도 등 도입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ark@

전남대 입시정보 한눈에 훑어서 '원 클릭 서비스'

전남대학교는 수험생·학부모·교사에게 전남대와 관련된 입시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 클릭 서비스'(1-Click Service)를 제공한다.

원 클릭 서비스는 별도로 마련된 인터넷 홈페이지 ao.jnu.ac.kr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남대 홈페이지(http://www.jnu.ac.kr/)에서 입학·취업란을 찾아 '원 클릭 서비스' 항목에서 접속할 수 있다.

제공되는 입시정보는 전남대의 학과 소개, 학과 장점, 진로·취업 정보, 장학제도, 입학전형 등이다. 특히 전형별 평균 표준점수, 합격

자 성적, 모집인원, 경쟁률 등 최근 3년간의 입시정보도 담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원 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남대와 관련된 입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12-8116
우산 512-8116
윤원 371-9818
중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신월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창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8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군산시 063)467-2500
정읍시 063)531-5544
남원시 063)633-9911

순창군 063)653-0444
고창군 070-8201-0370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0055
함평군 324-8111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광주광역시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목포시 276-9200
영암군 471-1717
강진군 434-6830
해남군 537-6767
진도군 543-0100

보성군 852-8646(보성) 857-0686(별교)
장흥군 863-8822
고흥군 842-2121
여수시 692-0997
원도군 554-6677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신문구독_062 220-0551
예향구독_062 220-0550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